

박종규 Park Jongkyu (b.1966)

📷 @studio.j.park

학 력 파리 국립 미술학교 poste diplome
파리 국립 미술학교 졸업 D.N.S.A.P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 인 전 2023 시대의 유령과 유령의 시대 (학교재 갤러리, 서울)
2022 Noosphere 2022 (CNK 갤러리, 대구)
Vertical time 2022 (BK 갤러리, 서울)
2021 Vertical time (가나아트 나인원, 서울)
~Kreuzen 2021 J. PARK (조은 갤러리, 서울)
2020 ~Kreuzen 2020 J. PARK (데이트 갤러리, 부산)
2019 ~Kreuzen 2019 J. PARK (대구미술관, 대구)
~Beacon Code 2019 J. PARK (갤러리 분도, 대구)
~Beacon Code 2019 J. PARK (갤러리 양산, 양산)
~Beacon Code 2019 J. PARK (빌리웍스, 대구)
2018 Trajectory 2018 J. PARK (데이트갤러리, 부산)
Trajectory 2018 J. PARK (신갤러리, 뉴욕)
Embodiment 2018 J. PARK 展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그 외 다수

초대 / 단체전 2023《의금상경 衣錦尙綱》(학교재 갤러리, 서울)
2022 Beyond Horizon BKNFT x Crypto.com (갤러리 BK, 서울)
2021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2021 <오채찬란 모노크롬> (남도전통미술관, 진도)
<Utopia: now here> (갤러리BK, 서울)
2021 특별 기획전 <점·선·면·색·추상미술의 경계 확장>展 (영은미술관, 광주, 경기도)
울리(鬱離) - 박종규, 김현식, 서민정 (을갤러리, 대구)
PARS PRO TOTO_以偏例全 :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보다 (시안미술관, 영천)
2020 '석재를 바라보다' 수목의 확장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Winter Show' (가나아트사운드, 서울)
영은지기, 기억을 잇다 영은미술관 20주년 특별 기획전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2020 특별기획전 (박석규 미술관, 목포)
그 외 다수

출 판 2019 ~Kreuzen 2019 J. PARK (대구미술관)
2017 Embodiment 2017 J. PARK (인당미술관)
2016 Maze of Onlookers 2016 J. PARK (리안갤러리)
그 외 다수

수 상 2004 하정웅 청년작가상,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작 품 소 장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부산시립 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미술은행, 대림미술관, 광주 시립미술관, Croix St-Simon 병원(파리), 외교통상부, 서울대학교, JTBC사옥, 환기 미술관, 비트리 시립미술관(프랑스), (주)페리에 주에(프랑스), 63스카이아트 미술관, 메리어트 여의도 파크센터, 수원 아이파크 미술관, 시공사, 양평 군립미술관, 한독약품,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비발디 파크, 웨라톤인천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서울 동부 지방법원, 다보 미디어, 루터 어소시에잇 코리아, 샤프 드 클리낭시(프랑스), 파라다이스 시티
그 외 다수

[Artist's Note]

박종규(b.1966)는 전통적인 회화와 미디어아트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시도한다. 시각에만 의존하던 전통적 회화에서 한 단계 올라가 다양한 감각에 호소하며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그는 예술과 과학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장르를 오직 자신의 상상력만으로 연결해 더욱 풍성한 세계를 구축했다.

그가 수집한 디지털 노이즈들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이고 기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박종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대상에 접근한다. 불규칙한 나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다양한 변주를 만드는 그의 작업은 무궁무진한 확장의 가능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박종규의 노이즈는 포용력이 있는 생명으로서 존재한다. 숨이 불어넣어진 그의 미적 세계는 이제 감상자에게 손을 내민다.

“나의 세계에 사람들이 동참해 줄 때, 사람들은 내가 바라보고 느끼고 좌절했던 모든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곧 나의 과거의 세계가 수많은 채널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그림이라는 자신만의 언어로 세상에 화두를 던져야만 한다. 박종규의 노이즈 또한 그렇다. 모든 것이 빠르게 디지털로 편입되고 있는 세상, 그 안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게 만든다. “제거되고 배제된 대상 안에는 더 이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노이즈의 수집은 무질서한 혼란과 혼돈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불규칙의 리듬 위에서 직조된 노이즈들은 상징과 기호가 아니라 신호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

결국 박종규에게 노이즈란 사고의 표현이자 회화적 신호이며 더 나아가 정신적 가치의 발현이다.

“과학이 없는 예술은 무지한 것이며 예술 없는 과학은 맹목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과학은 길을 내는 것이며 예술은 그 위를 달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세계관 속에서 탄생한 박종규(b.1966)의 노이즈는 휴머니즘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디지털이 완전해질수록 인간의 설자리는 사라져갈 것이다. 따라서 노이즈의 존재는 컴퓨터의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표식이자 휴머니즘의 잔존을 의미한다. 만약 더 이상의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대상에 깊게 파고드는 끈기와 다른 방식으로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동반된다. 박종규는 끊임없는 예술적 실험과 고찰을 통해 모두가 외면하는 부정적 존재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입체와 평면, 시간과 공간, 0과 1 등 다양한 관계를 동반하고 있는 그의 예술 세계는 완벽이라는 틀 안에 놓인 객체적 삶에서의 해방이다.